

유치원생용

창작동화 · 벼의 한살이

벼톨아, 벼톨아 쑥쑥 자라라

벼톨아, 벼톨아
쑥쑥 자라라



창작동화 · 벼의 한살이
벼톨아 벼톨아 쑥쑥 자라라





벼돌아, 벼돌아 쑥쑥 자라라

안녕! 나는 벼돌이야
내친구들을 소개할게.

나는 해쌀이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알곡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볼래?

우아함~ 잘 잤다.
친구들, 안녕? 나는 벼톨이야.
이제부터 나와 벼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나 벼톨이와 벼씨 친구들 모두 겨울잠에서 깨어났지.
이제 논으로 돌아갈 시간이거든.



안녕? 나는 해쌀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알곡이.
아이, 졸려.
조금 더 잘까?

아함~~

~~~~아함



개구리가 팔짝, 방아깨비가 펼쩍.  
“농부 아저씨, 저기 폭신한 곳으로  
던져 주세요~.”

농부 아저씨가 볍씨 친구들을 논에 뿌려 주셨어.

우리는 붕~ 날아 땅에 착착 내려앉았지.

앞으로 이 논에서 무럭무럭 자랄 거야.







쭈응~

우아~  
난다, 날아.

아이,  
어지러워라~.



아하, 아이 간지러워.



머리가 간질간질.  
새싹이 내려나 봐.

볍씨 친구들 몸에서 근질근질 뿌리가 나더니  
간질간질 새싹이 돋았어.



꼼지락꼼지락.  
뿌리가 났어.



이야~  
요 예쁜 싹 좀 봐.



어머머머~



이제 뿌리로는 땅이 주는 밥을 열심히 먹고,  
앞으로는 햇빛을 듬뿍듬뿍 받아  
쑥쑥 클 거야.

논에 사는 친구들과  
앞과 줄기가 난  
봄의 볍씨를 붙여 주세요.

내가  
더 크지?



무슨 소리.  
내가 더 커.



어머, 내 앞이  
제일 크단다.



**1** 단원 학습  
논에는 많은 친구들이 살아  
논에는 우리 벼와 함께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  
땅속을 헤집고 다니는 개미와 지렁이는  
흙을 부드럽게 해 줘. 또 거미와 개구리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벌레들을 잡아 주지.  
모두모두 고마운 친구들이야.



툭 툭툭, 후드득 후드득.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일은  
즐거 하나를  
더 내야겠어.



우리 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이 왔어.  
벼 친구들은 뜨거운 햇살과 달콤한 빗물을 먹으며  
키도 쑥욱 자라고, 즐기도 부쩍 늘었지.



밥 많이 먹고  
나는 두 개!

잠을 푹 자고  
나는 세 개!



“아얏! 누가 내 잎을 깨물었어?”  
이런! 벼 잎을 갉아 먹는 벼메뚜기잖아.

벌레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친구들을 마구마구 괴롭히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왔어.”



사마귀가 흰 벼메뚜기를 낚아채고,  
청개구리도 날름  
벼멸구를 집어삼켰지.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 짹짹, 짹.  
이야, 배고픈데 잘됐다.  
벼들이 토실토실해졌네~.”

저런, 여름내 벌레를 잡아 주던 참새들이  
우리 알곡들을 쫓아 먹으려 해.

“ 허수아비 아저씨,  
참새 좀 쫓아 주세요.”



휘여, 휘여어~  
참새들아, 저리 가거라.



벼가 익어 가는 논에  
허수아비 스티커를  
붙여서 참새들을 쫓아 주세요.

아이,  
깜짝이야

3학년 학습

### 열매가 맺고 크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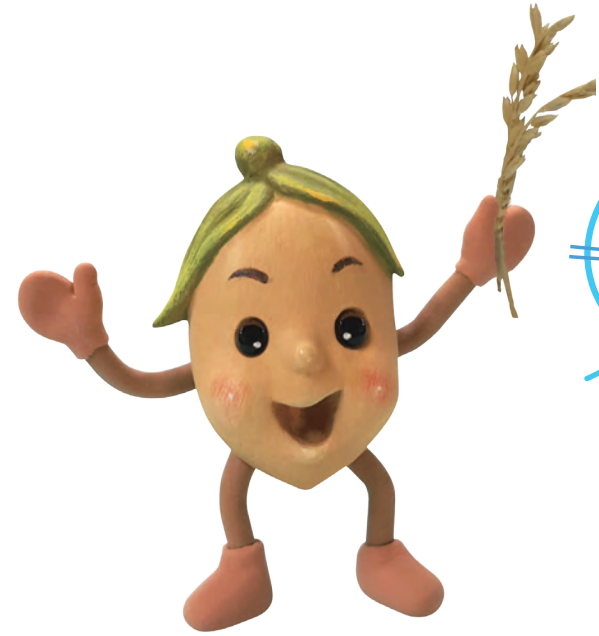
벼꽃은 꽃잎도 없고 향기도 없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수 없어. 하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꽃가루받이를 하고 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열매는 잎이 만든 영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거야.





귀뚜라미야,  
너 노래  
진짜 잘한다~.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떴어.



달님,  
우리 알곡들  
많이 자랐지요?

귀뚜르르 귀뚜르르,  
귀뚜라미는 자장가를 불러주고, 알곡들은 거의 여물었어.  
이삭이 무게를 못 이기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네.



위잉, 위이잉.  
이른 아침부터 농부 아저씨가  
우리 벼들을 거둬들이고 있어.

아저씨도 고생하셨어요!



땅속의 좋은 양분과 별 좋은 날씨 덕분에  
둑뚝 열린 우리 알곡들은 튼실하게 자랐어.  
그나저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친구들이야, 고마웠어. 잘 자.”

개구리야,  
내년에 만나~.



쿨쿨, 드르렁 드르렁.

우리 벼들이 떠난 논 깊은 곳에서

개구리, 개미, 지렁이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그래,  
너도 잘 쉬렴~.





한 해 동안 우리가 자라던 눈은  
친구들의 겨울 놀이터가 됐어.

왁자지껄 연날리기도 하고,  
따뜻한 봄에 벼가 잘 자라라고 쥐불놀이도 하지.  
땅도 겨우내 쉬면서 우리 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갔냐고?





연을 날리고  
뛰어노는 친구들의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4 단원 학습

왜 겨울 논에서 쥐불놀이를 했을까?

쥐불놀이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정월 대보름에 하던 민속놀이로, 그해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논두렁에 있는 마른 풀과 논바닥에 남은 볏짚에 불을 놓아 태우면 해충의 알이나 벌레들은 죽고, 논에 숨어 있던 들쥐들도 도망을 가. 타고 남은 재는 우리 벼가 먹을 양분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쥐불놀이는 실제로도 농사에 도움이 되었어.



우리 벼들도 곡식 창고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



어떤 벼들은 봄이 찾아오면 다시 논으로 돌아갈 거야.  
또 어떤 벼들은 맛있는 쌀이 되어  
친구들이 쑥쑥 자라도록 영양분이 될 거야.





쿵더쿵, 방아를 짚으면  
벼 껍질인 왕겨는 벗겨지고, 쌀알만 남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먹는 쌀이야.



쌀에는 종류가 참 많아. 껍질만 살짝 벗긴 현미도 있고, 새하얀 백미도 있어. 또 찰쌀, 멥쌀도 있고, 흑미, 홍미도 있지.





## 김이 모락모락, 윤기가 짹짹.

우리 친구들이 먹는 쌀밥에는  
한 해 동안 벼 친구들이  
힘껏 받아들인 양분과  
햇살과 바람이 가득 들어 있어.  
쌀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쑥쑥 자랄 거야.



“와~ 엄마! 밥이 꿀맛이에요!”



밥상에  
수저와 반찬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쌀로는 밥맛 짓는 게 아니라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설날에는 가래떡을 뽑아  
쫄깃쫄깃 떡국을 끓이고,  
추석에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송편을 빚지.



밥상에  
맛있는 떡국과 수저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우아~ 엄마! 정말 쫄깃쫄깃 맛있어요.”



5학년 학습

쌀로 만든 음식은 뭐가 있을까?

쌀로는 밥이나 떡 말고도 만들 수 있는 게 아주  
많아. 술술 넘어가는 죽도 있고, 김으로 돌돌 만  
김밥도 있지.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  
와 빵도 쌀로 만들 수 있어.  
생일날에 쌀로 만든 케이크를 맛보는 건 어떨까?



애들아~  
놀이터 가자!

네~ 선생님.

우아~ 친구들이 모인 유치원이다.  
나도 같이 놀자.

어, 그런데 한 친구가 놀지도 않고 칭얼대기만 하네.  
힘도 없고 피곤해 보여.

친구야,  
왜 그래?



## 친구가 배가 아픈가 봐.

화장실에서 끄끙 힘을 주지만  
똥은 나오지 않아.

### 왜 그럴까?



친구야,  
힘을 내~.





맞는 단어를  
붙여 주세요.

# 저런,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랬구나.

유치원에 늦었다고 아침밥을 안 먹으면,  
힘이 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없어.  
똥도 잘 놀 수 없고 말이야.  
아침밥을 먹어야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 꼭 기억해 줘.



## 밥을 잘 먹으면



 집중력이

 몸이

 피곤하지

단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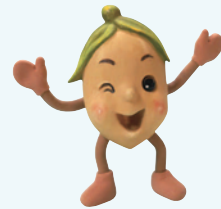
### 하루 세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하루 세끼를 잘 먹으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해. 또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 밤늦게 간식을 먹으면  
아침밥을 먹기 싫어지니 안 먹는 게 좋겠지?



# 벼틀아, 벼틀아 쑥쑥 자라라

유치원생용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기획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소비문화실(전화 044-861-8867)

심의 전문정(서울광장중학교 영양교사)  
장세희(서울가주중학교 교사)  
조성은(서울가주중학교 교사)

감수 감명환(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호(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편집·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

집필 배영하

일러스트 박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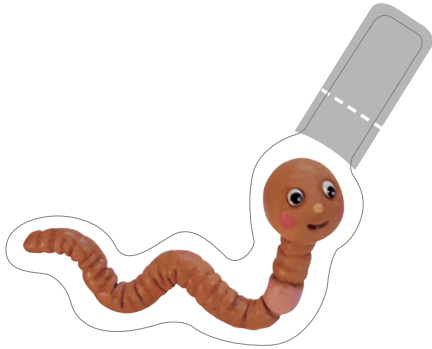
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www.epis.or.kr)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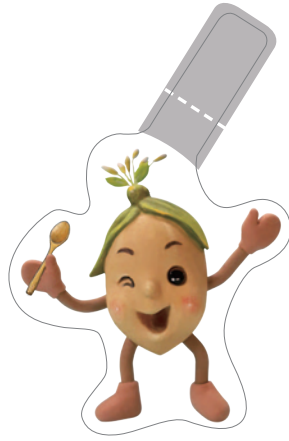




12~13페이지에  
붙여주세요







20~21페이지에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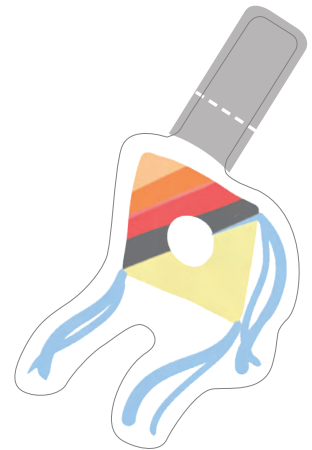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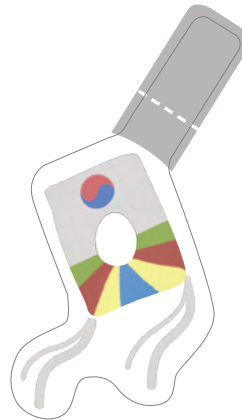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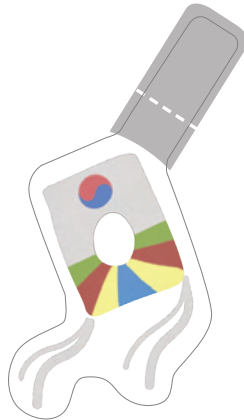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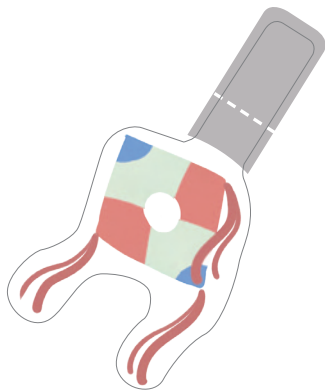
24~25페이지에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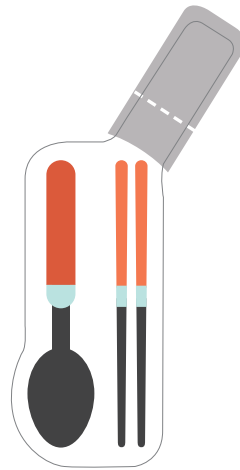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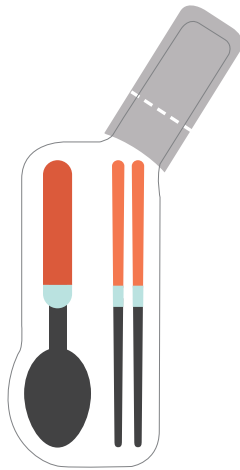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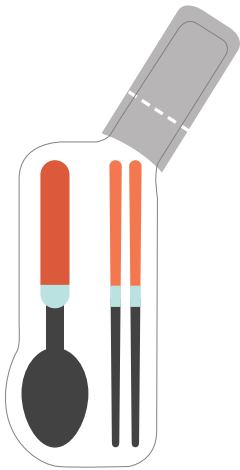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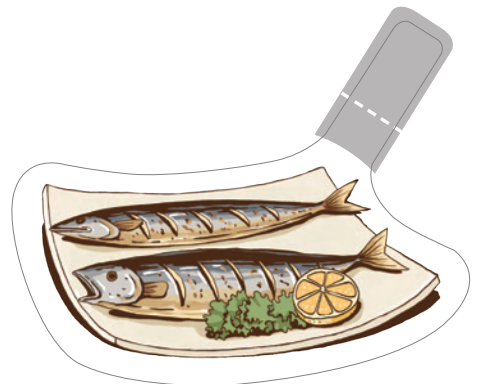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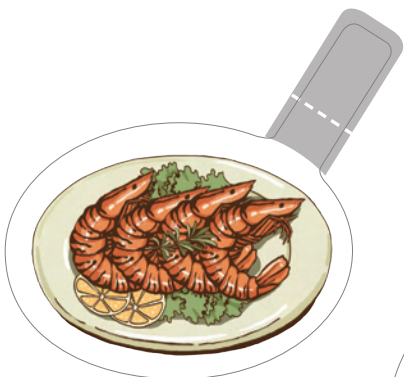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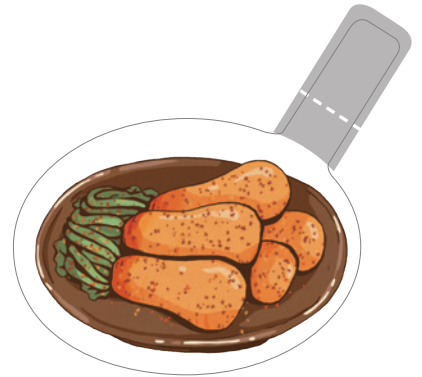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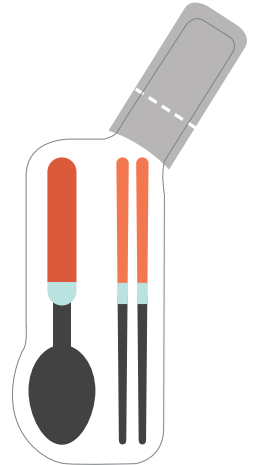
34~35페이지에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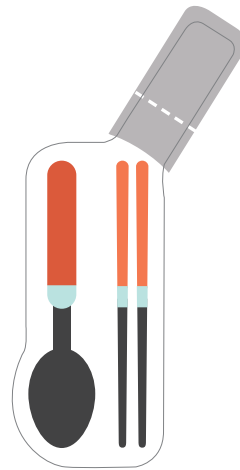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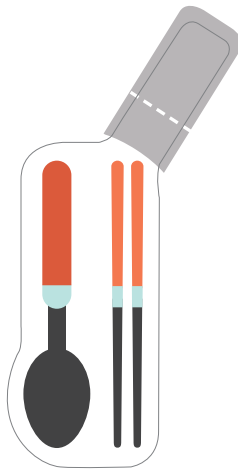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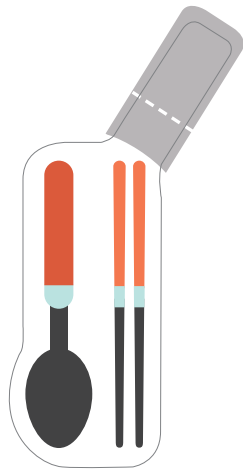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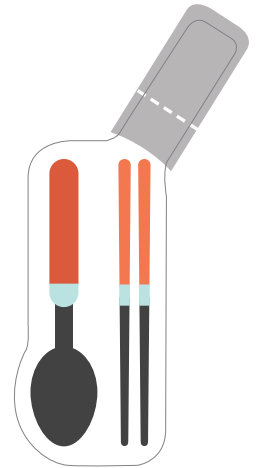
40~41페이지에  
붙여주세요







42~43페이지에  
붙여주세요



높아져요

48~49페이지에  
붙여주세요

튼튼해져요

않아요

